



무너져 내리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

어느 해보다도 쓸쓸하고 빈궁한 생활을 눈앞에 둔 1월 23일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인산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요즘 생활과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산지역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면담 장소를 제공해 준 「안산노동교육실」에 감사드린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지난 9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산공단에 있는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에 다니는 박영선씨(40세)는 12월 달 월급으로 62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기아사태와 IMF 한파가 몰려온 이후 임업을 거의 하지 못해 임업수당이 아예 없고, 연말에

나와야 할 상여금도 ‘경영악화로 월급 주기도 어려운 판에 상여금이 웬말이냐’는 사장의 업포에 떨리 퍼라 말도 못하고 말았다. 회사가 경비절감을 이유로 통근버스마저 없애고 장기근속자를 상대로 반협박 반애원으로 폐직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쫓겨나지 않고 기본급만이라도 견진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요? 제가 노동조합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노조가 민주금속연맹 소속이고요.”

박씨는 노동조합에 별다른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다. 큰소리치며 자기를 따르라던 위원장은 실제 싸움이 터지면 자취를 감추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노조 집행부와 위원장 사이에 불신이 쌓인 지 오래다. 노조위원장이 회사 대변인이나 진배없다는 쑤군거림도 들려온다. 사정이 이러니 조합원들도 노조를 믿지 않는다. 노조가 만들 어진 지 십여년, 전노협 시절부터 ‘민주노조’를 지켜왔다. 설혹 열심히 잘하는 노조라도 회사가 줄 돈이 없다고 ‘배 짜라’는데 별 뾰족한 수가 있을까마는.

“이제 와서 고용불안 그려지만 사실 96년부터 시작됐었어요.”

박씨 회사 종업원은 대부분 나이 사십에 근속년수 육칠헌의 아줌마들이다. 회사는 96년부터 하청과 외주를 늘려왔고 퇴사자가 생겨도 결원을 보충하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소사장제를 도입해 시화공단에 있는 제2공장 기계들은 이미 팔려나갔다. 얼마 전에는 안산 제1공장 기계도 뜯어내려고 해 조합원들이 회사와 대판 싸워 막아냈지만, 회사가 또다시 수작을 부릴 것은 틀림없다.

“오늘부로 직반장 아홉명이 평사원이 되었습니다.”

박씨와 같은 공장에 다니는 박춘석씨(38세)가 거들고 나섰다. 작년 7월 기아사

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구조조정이니, 부도니, 감원이니 하는 얘기들이 사장의 입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직반장 아홉명이 평사원으로 강등되었고, 사무실의 관리직들이 새 직반장으로 내려왔다. 식당도 외주 처리했고, 회사 경비원도 두명에서 한 명으로 줄였다. 1월에 열린 노사협의회는 협의하고 상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올해는 죽었다 생각하고 일만하라’는 사장의 말에 치밀어 오르는 욕을 간신히 목구멍으로 집어삼켰다.

“설제 회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박춘석씨는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산 제1공장 사장은 월급사장이고 여덟개의 회사를 거느린 진짜 사장이 인천에 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땅도 많다. 아마 진짜 사장이 갖고 있는 공장과 부동산은 안산공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단맛은 다 빨아먹고 쓰니 벌으려는 진짜 사장의 처사가 알립기 짝이 없다. IMF 사태와 어지러운 나라 경제사정을 빌미로 소사장제를 도입하고, 노동조합을 깨뜨리고, 일용직을 쓰고, 정규직을 짜르려는 것이 확실하다.

“공장 오래 다닌 사람은 똥값입니다.”

자동차 스프링 공장에 다니는 안희철씨(30세, 가명)는 요즘 기분이 찜찜하다. 다니던 회사가 작년 12월 부도가 났고, 12월 분 월급을 60만원 남짓밖에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기분이 언짢은 이유는 다른데 있

다. 안씨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고참들이 한필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삼십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한 아저씨들이 줄줄이 해고당하고 있다. '철야맨'으로 불리며 젊은 쟁다구로 비티던 자기만 무사한 게 못 내 미안하다. 반별로 정리해고 명단이 작성되어 있고,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냥 앉아있으라는 말은

맹 소속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지만, 조합원을 만나 의견을 묻고 노조 활동을 홍보하는 따위의 일상활동은 원래 없었다. 이미 노조가 알아서 상근자 두명을 한명으로 줄였다. 그나마 상근자 한명 월급도 30%는 노조가 관리하는 자판기 수입에서 충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가 물려서니 사장은 기고만장이다. 김원은 따

**노조가 물려서니 사장은 기고만장이다. 김원은 빠 놓은 당상이고,
회사식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도 돈을 받겠단다. 갑봉 이야기가 들리지만 선뜻 회사를 옮길 생각을 못한다.
갈데가 없다. 안산공단에선 일용직도 만원인지 오래다.**

청춘을 첫밥 먹으며 보낸 고참들에게 '인생을 정리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새파란 관리직들이 고참들을 모아놓고 '빨리 나가라'고 설쳐대고 있다. 아파서 쉬겠다면 평생 쉬라는 풍에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로 나온다. 이곳도 김원바람은 이미 2년전부터 불었다. 180명이 넘던 종업원은 이제 90명도 남지 않았다. 안씨가 하는 일도 원래 두 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하고 있다. 그 전에는 작업 현장에 여유가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자들이 상주하면서 '무스타임'을 없애고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풍에 웃음꽃이 사라진 지 오래다.

"노동조합이 지레 겁먹고 양보합니다."

안씨 사업장의 노조는 한국노총 금속연

놓은 당상이고, 회사식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도 돈을 받겠단다. 갑봉 이야기가 들리지만 선뜻 회사를 옮길 생각을 못한다. 갈데가 없다. 안산공단에선 일용직도 만원인지 오래다.

"노조없는 사업장은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이승관씨(29세, 가명)는 자동차내장 제작 공장에 다닌다. 종업원이 7백명이 넘는 이씨 사업장은 규모로는 안산에서 열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크다.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종업원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서울 구로에 있는 본사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사장이 재빨리 법인을 분리하는 바람에 안산공장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노조를 만드려는 몇번의 시도는 회사의 술수와 공작에 좌초

당했다.

아무리 IMF 시대지만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경영상태도 좋아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건만, 회사는 작년 12월에 주기로 한 상여금 200%를 체불하고 있다. 12월부터 구조조정 소리가 들려오더니 지금은 해고와 임금삭감이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다. 최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는 상여금 150% 삭감이 결정되었다. 본사 인원을 포함해 사무직 80명이 짤렸는데, 이 칼날이 언제 생산적으로 향할지 모른다. 이미 식당아줌마, 청소부, 경비원도 일용직으로 바꿨다. 2월내로 종업원의 25%인 3백명을 감원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12월에는 임업을 많이 해서 90만원 정도 받았는데, 임업은커녕 연월차휴가도 다쓰라고 설쳐대는 1월에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혼한 지 한달도 안됐는데 안사람이 밖으로 돈벌려 다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찔렁하다.

“요즘 적금 깨고 난리도 아닙니다.”

두 박씨나 안씨와 이씨는 붓고 있던 적금을 이미 깰거나 깔 생각을 하고 있다. 미혼인 안씨에게 요즘 뭐가 가장 어렵냐고 물었더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한다. 하물며 한 가정의 가장들인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랴.

박영선씨는 알아서 상업고등학교에 가준 첫딸이 고맙기만 하다. 과외비 걱정 없

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대학등록금 걱정 없는 것만도 다행이라는 박씨의 얼굴에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역력하다. 한달에 3만원 주던 아이들 용돈도 만원으로 줄여서인지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둘째딸이 요즘 문밖을 나가지 않는다. 새학기 학비도 걱정이다. 회사가 주던 학비보조금도 수당 삭감에 따라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기야 쌀값 아낄 요량으로 쌀도 처갓집에서 갖다 먹는 관국이다.

“요즘 술값 안나가서 좋고 술 안마셔 건강해져 좋습니다.” 술 좋아하는 박춘석씨의 얼굴에도 웃음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매달 10만원씩 보내던 시골 부모님 용돈도 못보낸 지 두달째다. 이번 설에도 밀린 임금을 주면 내려가고 안주면 못내려간다.

“마이너스 통장에 은행빚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말이 없던 김종일씨(30세, 가명)도 입을 열었다. 부인과 맞벌이를 하지만 수입이 불규칙해져 가계를 꾸리기가 영 힘들다. 자동차 바퀴 빼대 제작 공장에 다니는 김씨 역시 적금을 깼다. 회사에서 일할 맛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지만 그만 두어야 할지 못내 고민이다. 올해 아기를 가져볼까 생각했는데 이 계획 역시 물 건너갈 것 같다.

“노동자 입장에서 찍었어야 했는데...”

년지시 지난 대선에 누굴 찍었냐고 물어보았더니 박춘석씨가 바닥을 쳐다보면서 내뱉는다. “3번 찍었어요. 짚고, 영호남 출

신도 아니고, 세대교체도 해야 하고, 하지 만…” 말꼬리를 흐린다. 박영선씨는 ‘권영 길이가’ 당선 가능성이 없어 2번을 찍었단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마누라 고향이 DJ 고향인 하의도 옆 어느 작은 섬이라 그랬다고 머쓱하게 웃는다. 지금은 후회스럽다는 박씨의 표정에 후회의 기미는 없어 보였다. “물론 다른 사람을 찍었지만, 노동자는 하나라고 말은 많고 노동자가 1천만 명을 넘는데 30만 표밖에 나오지 않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박씨의 얼굴에 실망스러운 빛이 스친다.

두 박씨보다 젊은 안씨와 이씨 그리고 김씨는 4번을 찍었지만 불만도 많다. 기성 정치인의 흉내를 낸 적은 없는지, 노동자 후보로서 노동자의 문제를 선명하게 내세웠는지, 노동자에게서 한표 받을 생각보다 잘먹고 폼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한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노동자후보면 노동자후보자 ‘국민후보’는 또 뭔지, 월드컵 선전문구도 아니고 ‘일어나라 코리아’는 무슨 뚱딴지같은 이야기인지, 실체보다는 이미지에만 충실한 것 아닌지 따위의 이야기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 점에는 두 박씨도 고개를 끄떡였다.

“안팔리는 게 소원이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소원을 물어보았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안씨는 “하늘이 두쪽나도 올해 장가를 간다”고 선언하지만,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다. 박영선씨는 “안팔려야 한다. 그래야 가족도 화목하게 산다”고 다짐한다. 노총 각인 박춘석씨는 안팔리고 장가가는 것이 라며 수줍게 웃는다. “IMF 한파가 빨리 가야죠.” 김씨가 툭 내뱉는다.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아직 신혼인 이씨의 바램이다.

“시화호가 뚫물이 아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고 「안산노동교육실」 교육선전실장인 박정호씨(32세)와 술을 마셨다. “91년인가요? 안산에 처음 내려와 그 때 막 공사 중이던 시화공단 옆 도로를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달렸던 적이 있죠. 노동자가 된다는 설렘과 묘한 흥분, 그리고 일종의 사명감으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당시 시화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시화호 물도 뚫물이 아니라 깨끗할 때였죠. 저나 공단이나 활기가 가득했던 시절이죠. 저라도 열심히 해야겠는데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네요.”

얼마전 다니던 공장을 자의반타의반으로 그만둔 박정호씨는 지금 우유배달을 하면서 「안산노동교육실」의 살림을 꾸리고 있다. 그의 아내는 해고자다. ♦